현대북한연구, 13권 2호(2010), © 2010 북한대학원대학교, pp.118~150.

한웅빈 문학의 전쟁 반영 양상 연구: 「딸의 고민」, 「전선길」, 「소원」을 중심으로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연구교수)

1. 서론

본 연구는 북한 최고 단편 작가인 한웅빈의 단편소설을 통하여 북한 소설에 나타난 전쟁 반영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소설을 포함하여 북한 문학예술 전반에서 전쟁은 가장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전쟁의 다양한 양상을 일상 속에서 포착한 작가의 한 사람으로 한웅빈이 있다.

한웅빈은 1945년 10월 10일 중국의 길림성 연길현 용정에서 태어나 북한으로 들어가 문학통신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작가이다. 『조선문학』 1974년 1월에 단편소설 「어느 휴식날에」를 발표하면서 재능을 인정받고, 1976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교 작가양성반에서 작가 수업을 받고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1] 이후

1) 그 동안 국내에는 "1977년 사리원 제1사범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한웅빈이 자신의 장편소설 『아, 조국!』의 "편집후기"에서 "주체65(1976)

한웅빈은 단편소설을 비롯하여 수필과 설화문학 등 1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는 등 북한 현역 작가 가운데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작가의 한 사람이다. 2000년 이후 정책적인 차원에서 장편소설을 쓰기는 하였지만 한웅빈은 단편소설에 탁월한 작품을 남긴 작가로 평가된다.[2] 한웅빈은 『조선문학』을 주요 활동문대로 여러 편의 단편소설을 남겨 '단편소설의 제왕', '북한의 체홉'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북한 최고의 단편소설 작가로 평가되는 한웅빈의 단편소설 「딸의 고민」, 「전선길」, 「소원」을 통해 북한문학과 전쟁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4]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문학이 전쟁

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작가양성반에서 공부하면서 작가적인 기량을 쌓아 나아갔으며 졸업 후에는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작가로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웅빈, "편집후기," 『아, 조국!』(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378쪽.

2) 2000년 이후에는 공동 창작으로 장편소설을 발표하였는데, 모두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실화소설이다. 『결승선』은 북한의 마라톤 영웅 정성옥을 소재로 한 실화소설이며, 『아, 조국!』, 『평양사람』, 『소원』은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델로 한 소설들이다. 한웅빈은 비전향장기수를 모델로 한 실화소설의 첫 작품인 『93년 3월 19』의 작가이기도 하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이후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4·15문학창작단을 비롯한 최고의 작가들을 참여시켜 소설로 창작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출발이 된 것은 한웅빈이 1995년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문학신문에 연재한 『93년 3월 19일』이 시작이었다. 김덕철·한웅빈, 『결승선』(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한웅빈·로정법, 『평양사람』(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한웅빈·신용선, 『소원』(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3) 한웅빈에 대한 연구로는 이선미, "'위훈'을 성찰하는 냉소적 시선과 근검절약의 이데올로기－북한작가 한웅빈 소설연구 I," 『현대소설연구』(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293～316쪽; 전영선, "실리사회주의의 냉소적 자화상," 『북한문학의 지형도』,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211～246쪽이 있다.

4) 세 작품은 2006년 문학예술출판사를 통해 발표된 『우리세대』에 수고된 작품으로, 「딸의 고민」은 1992년 『신념의 대오』에, 「전선길」은 『조선문학』 1987년 3호에 수록되었던 작품이다. 다른 작품인 「소원」은 이전에 발표된 출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웅빈의 창작 작품은 전영선, "실리사회주의의 냉소적 자화상";

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일상화된 전쟁의 의미가 일상의 차원으로 어떻게 호명(呼名)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문학과 전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쟁 시기에 창작된 문학'이나 '군대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드러나는 선군시대의 문학'과는 다른 일상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일상과 전쟁'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 즉, 전쟁시기 창작된 작품이나 선군시대의 작품에는 일상성보다는 시대적 특수성이 반영된다. 전쟁시기에 창작된 작품에서는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노골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선군시대에 창작된 작품에서는 '선군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형 창조에 주목한다. 선군시대에 창작된 한웅빈의 작품으로는 『조선문학』 2001년 4호부터 6호까지 연재된 「스물한방의 '포성':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의 일기 중에서」가 있다. 이 작품은 선군시대의 전형적인 군인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선군시대의 군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주제로 한다.[5)]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일상의 차원에서 반영되는 전쟁 양상이다. 전쟁이라는 비일상적인 상황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북한문학이 담고 있는 전쟁과 문학의 일상적 측면을 분석하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작업이야말로 북한 문학예술의 가장 큰 주제로서 전쟁이 문학으로, 그리고 문학

전영선, "한웅빈의 작품 및 목록," 『북한문학의 지형도』, 243~246쪽 참고.

5) 이에 대해서는 노귀남, "북한문학 속의 변화 읽기," 통일문화학회 편, 『통일과 문화』, 창간호(2001); 김성수, "북한의 '선군혁명문학'과 통일문학의 이상," 통일문화학회 편, 『통일과 문화』, 창간호(2001); 이봉일, "2000년대 북한문학의 전개 양상," 김종회 편, 『북한문학의 이해 3』(서울: 청동거울, 2004); 김성수, "김정일 시대 문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선군(先軍)시대 '선군혁명문학'의 동향과 평가," 민족문학사학회 편, 『민족문학사연구』, 27호(2005) 참고.

이 반영해야 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딸의 고민』은 큰 공훈을 세우고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주인공의 아버지를 통해 전쟁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전선길』은 평범한 생활인인 주인공이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문뜩 전장을 떠올리며 그 길이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주제의 작품이다. 『소원』은 전쟁과 무관한 어린 소년이 무명용사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주제 화가가 된 사연을 통해 전쟁을 기억해야 한다는 주제를 담은 작품이다. 세 작품은 각각 주인공 아버지, 주인공의 회상, 화가의 추억을 통해 전쟁을 호명한다. 그리고 전쟁의 교훈은 오늘의 일상이 혁명선배의 희생 속에, 일상의 평범함 속에, 기억되는 남은 자들의 기억 속에 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북한 최고의 단편 작가인 한웅빈의 작품 분석인 동시에 북한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에 대한 분석으로서 의미가 있다. 제한된 작품과 지면으로 문학과 전쟁의 양상을 논할 수 있는 것은 북한문학의 대표성 때문이다. 북한 문학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창작의 기준과 원칙이다. 북한문학에서는 개별성으로서의 특수성보다 주어진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일반성과 보편성이 선행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세 편의 작품은 북한 문학 창작의 일반적 원칙 속에서 차별되는 '성찰적 반전'을 제시한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

2. 한웅빈 문학과 전쟁

한웅빈 문학의 특징은 생활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 포착하는

일상의 성찰에 있다. 북한 문학예술이 강조하는 피 끓는 심장의 고동이나 애국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냉소적이고 차분하게 일상을 성찰하게 하는 것이 한웅빈 작품의 가장 큰 특성이다. 영웅을 그리면서 결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한웅빈은 드러나지 않은 영웅, 평범한 인간에게서 발견하는 '위대한 면모', 인간 내면에 숨어 있는 깊이 있는 무게를 발견하게 만들면서 참된 인간을 성찰하게 만든다.

한웅빈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이다. 인물은 평범하지만 이들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는 평범하지 않다.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하지 않아도 북한 사회 내면의 관료적 속성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포착하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한웅빈의 소설은 북한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되기도 하고, 북한 사회의 이중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회학적 자료로 주목받기도 하였다.[6)]

한웅빈의 작품에서 주목하는 것은 일상에서 포착된 전쟁의 양상이다. 한웅빈의 여러 작품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 이 점은 한웅빈이라고 하는 한 개인 작가의 문학적 특색인 동시에 북한 소설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북한문학이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생활 자체가 거대한 전장이며, 체제유지를 위한 기반 자체가 '제국주의와 전쟁'으로 점철되기 때문이다. 전쟁은 소설의 소재나 지나간 역사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은 현재 진행 중인 문제, 일상의 문제이다. 전쟁이나 전투가 일상 속에 녹아든 것은 여전히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쟁이란 단순히 물리적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존재와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작가, 예술가들에게 주어진 '숭고한 임무' 역시 제

6) 이선미, "'위훈'을 성찰하는 냉소적 시선과 근검절약의 이데올로기－북한작가 한웅빈 소설연구 I," 295쪽.

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런 점에서 전쟁은 일상성의 한 측면이고, 문학예술은 일상의 전장(戰場)화를 통해 위기의식을 지속적으로 재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설에서 전쟁이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은 전쟁이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전쟁이란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이다. 전쟁은 무기가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갖고 자기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난다고 본다. 전쟁이란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의 요구가 목적이 되므로,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를 없애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목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고 규정한다. 전쟁에 대한 관점도 계급적이다. 전쟁의 성격은 계급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으로 규정한다. 북한에서 말하는 정의의 전쟁이란 '인민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하여' 벌이는 전쟁으로 규정한다.[7)]

북한에서 전쟁은 일차적으로 인민교양의 차원에서 호명된다. 전쟁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이어진 일련의 투쟁의 연속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것을 작가예술인들에게 요구한다. 전쟁 중에 작가, 예술인들에게 요구되었던 '전쟁승리를 위한 효과적 도구'로서의 역할은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쟁문학과 예술은 당과 인민들을 위한 훌륭한 교양자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와 인민들이 세계 '최강'을 자랑

---

7) 북한에서 규정하는 전쟁의 개념에 대해서는 허성숙, <강좌> "주체사상이 밝힌 전쟁의 성격," 『철학연구』, 2호(2009) 참고.

하던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소설, 영화, 노래, 무용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당원들과 인민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미 창작된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인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합니다. 정전이 된 오늘 우리 인민들이 평화적 건설을 진행하면서 가렬한 전쟁시기 자기들이 투쟁한 모습을 그린 문학예술작품들을 보면 커다란 감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8]

북한의 문학예술에서 전쟁은 가장 일반적인 소재의 하나이다.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은 물론, 일상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도 혁명선배, 명예군인들의 이야기가 빠짐없이 등장한다.[9]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한 놈들인가 하는 것'과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반대하여 어떻게 싸웠는지'를 교양한다. 교양이라는 측면에서 전쟁 관련 문학예술은 실질을 대체하는 자료가 된다.[10]

---

8) 김일성,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4년 8월 10일," 『김일성저작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61～62쪽.

9) "지난 조국해방시기 우리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무비의 헌신성,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였다.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웠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고상한 혁명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상적량식으로 되며 훌륭한 무용소재로 된다." 『조선예술』, 7호(1997), 52쪽.

10) "우리의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한 놈들인가 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한웅빈의 작품에도 전쟁은 중요한 소재이다. 한웅빈은 『푸른 잎사귀』[11]를 비롯하여 『나의 창문』[12], 『우리세대』[13] 등 3권의 단편소설집을 발표하였다. 단편집에 수록된 작품에는 전쟁의 일상을 반영하고, 전쟁의 영웅이 갖는 혁명선배로서 전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게재되어 있다. 단편집 『푸른잎사귀』[14]에 수록된 「분대장과 전사」는 전쟁 중에 고지를 지켜낸 전투 이야기이며, 「습격의 밤」은 '전선너머로 적후를 헤쳐 오는 습격조'를 기다리는 여병사의 이야기이다. 습격조를 소재로 하면서도 습격조의 전투를 그리지 않고, 습격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여병사를 통해 전쟁이 병사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령길-위훈에 대한 이야기」는 '후퇴시기' 상등병사에서 장교가 된 학선영감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푸른 잎사귀-한 료양소장의 이야기」에는 1950년 여름의 전투 이야기가 들어 있다. 『우리세대』[15]의 경우에는 전쟁에 대한 회고를 담은 「전선길」, 전쟁주제 명화

지금 인민군대에 18살 난 청년들이 입대하는데 전쟁시기에 그들의 나이는 5살도 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놈이라는 말만 들었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땅에서 감행한 야수적 만행을 직접 보지 못하였으며 적비행기들의 폭격에 대해서도 무섭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이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 용사들이 영웅적으로 투쟁한 사실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녀성들이 용감하게 투쟁한 사실들을 가지고 혁명적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김일성,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64년 12월 8일," 『김일성저작집』, 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461~462쪽.

11) 한웅빈, 『푸른 잎사귀』(평양: 문예출판사, 1987).

12) 한웅빈, 『나의 창문』(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13) 한웅빈, 『우리세대』(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14) 한웅빈, 『푸른잎사귀』.

15) 한웅빈, 『우리세대』.

창작으로 유명한 서영민이 전쟁주제의 그림을 그리게 된 사연으로 제시된 무명전사의 이야기를 다룬 「소원」, 전쟁시기 공장노동자들의 임금을 책임진 공장 부기장의 이야기를 다룬 「분노-한 부기장의 이야기」가 전쟁을 소재로 한 것이다. 『우리세대』에 수록된 다른 작품인 「딸의 고민」은 진정으로 조국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며,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대장, 안천복, 딸을 통해 보여주면서 북한 소설에서 전쟁을 어떻게 회고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3. 한웅빈 소설의 전쟁 반영 양상

1) 전쟁을 통해 체화된 영웅의 진정성: 「딸의 고민」

「딸의 고민」은 1992년 『신념의 대오』에 발표되었던 작품으로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영웅을 주제로 한다. 진정한 영웅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영웅이 아니라 숨어서 묵묵히 애국을 생활하는 인물이며,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사회가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한다.

어느 날 아침 높은 수압으로 배관이 터져 큰 사고가 날 뻔한 것을 몸으로 막은 보일러공 안천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엄청난 피해를 막은 안천복은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영웅으로 대하는 것을 거부한다. 오히려 스스로 “비판을 받아야 할 작자”라고 폄하한다.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서도 자신을 욕하는 안천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안천복의 딸 영순도 불만이다. 남들은 영웅이 되지 못해 안달인데, 아버지는 스스로 영웅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었다. 안천복

이 영웅임을 거부하게 된 것은 전쟁 때 받은 훈장메달 때문이었다. 안천복은 전쟁을 통해 훈장메달을 받았지만 스스로는 영웅도 아니고,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훈장메달을 받게 된 것 자체가 자신의 위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안천복은 전쟁 때 신병으로 가장 치열했던 진지방어전에 투입되었었다. 안천복은 제일 어린 신입대원으로 총도 제대로 쏠 줄 몰랐고, 수류탄 안전고리도 뽑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어수룩한 병사였다. 어느 날 전투가 치열하던 중 안천복은 부상 입은 병사를 고지 후면으로 이송하고 돌아왔을 때 마침 고지를 지키던 모든 병사들이 죽고 혼자만 남게 되었다. 그때 마침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안천복은 홀로 고지를 지킨 영웅으로 훈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안천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지켜낸 것이지 자신이 지킨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고지를 지킨 영웅으로 훈장을 받게 되었다. 이후 안천복은 영웅의 뒤에 가려진 희생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게 된다. 아무리 훌륭한 영웅도 독불장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사연이 있었기에 안천복은 자신이 영웅이 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칭찬에 인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천복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도리어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로 눈총 받기 십상이었다. 작업이 끝나고 총화시간이 되면 높은 실적을 올린 노동자들도 안천복에게서 비판을 받기 일쑤였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누구 하나 안천복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천복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평판도 좋지 않았고, '겸손이 지나친 것'을 지나 '괴벽'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느 날 돌격대 대장이 160프로의 성과를 올렸다는 말을 듣고는 칭찬은커녕 도리어 돌격대장의 성과가 과장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비

판한다. 돌격대장의 성과는 160프로가 아니라 정확히 159.3프로였으며, 자재소비도 101.3프로로 1.3프로를 초과하였다는 것을 따지고 든다. 나아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현장에서 자재를 낭비하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 돌격대가 일한 현장을 가보면 전쟁 마당 같습니다. 쭈그러진 철판, 토막한 산형강들, 깨어지거나 귀떨어진 내화벽돌들, 반토막짜리 용접봉들… 일이 끝난 일터가 아니라 시작한 일터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재를 얼마나 썼는지 압니까? 101.3프로입니다. 그 널린 것만 잘 거두어들였어도 0.3프로라는 꼬리는 없어졌을 거외다. 그러나 0.3프로란 아무것도 아니지요. 1.3프로를 뭉텅 잘라버리고 100프로인 듯이 한 마디 언급도 안하는데 0.3프로가 무엇이겠오? 일을 좀 많이 하면 그쯤한건 다 묻혀버립니다. 공장이 커지더니 우리 사람들이 통도 굉장히 커졌지요. 이모저모루 말입니다.
>
> 금방 직맹위원장동무는 돌격대가 160프로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159.3프로입니다. 사사오입을 해서 160프로로 불어났지요. 자재소비는 101.3프로인데, 역시 사사오입을 해서 100프로루 줄어들었수다. 이것참 이상한 사사오입법 아닙니까?[16]

돌격대장은 안천복의 딸인 영순의 애인이었다. 영순은 돌격대장이 열심히 일한 공을 알아주지는 못할망정 자재를 조금 더 썼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게 된다. 이런 영순에게 안천복은 젊은 시절의 일화를 들려준다. 젊은 시절 안천복은 바로 자신이 비판

16) 한웅빈, 「딸의 고민」, 『우리세대』, 143～144쪽.

했던 것과 똑같이 돌격대장처럼 열심히 일하고도 반장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 그날은 아무리 일해도 힘든 줄을 몰랐다. 그날 나는 250프로를 했다. … 그런데 일이 끝난 다음 작업장을 돌아보던 반장이 내가 일하던 곳에서 버려두고 내려온 용접봉 몇 대를 찾아내고는 작업총화 때 나를 호되게 비판했다. 그는 들고 온 용접봉만이 아니라 용접봉꽁다리가 길다는 것까지 들어서 나를 때렸다. 화가 나더구나. 일을 많이 한건 알은척 않고 흠집만 들추어내니…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말이다.[17]

안천복은 250프로라는 놀라운 실적을 냈지만 총화시간이 되자 반장은 안천복이 작업장에서 흘린 용접봉 몇 개를 가지고 와서는 안천복을 비난했고, 심지어 용접봉 꽁다리가 길다고 때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안천복은 화가 나서 반장에게 대들어 보지만 반장은 자신에게 맞서는 안천복을 호되게 나무란다.

총화시간에 안천복이 돌격대장을 비판했던 일과 꼭 같은 일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다. 과거 안천복과 반장은 현재 돌격대장과 안천복으로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 같은 설정은 상황의 동질성을 의미한다. 시간이 변해도 공유해야 할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돌격대장이 가졌던 것처럼, 과거 안천복이 가졌던 것처럼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우쭐될 것이 아니라 용접봉 꽁다리 하나라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교양으로서 일상성으로부터 애국심을 포착하는 한웅빈의 시선인 동시에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인

17) 위의 책, 150쪽.

민들에게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장은 전쟁 때 안천복을 살리려다 부상을 입은 소대장으로 안천복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다. 여기서 반장은 혁명선배이고, 안천복은 혁명 후배를 상징한다. 동시에 안천복을 살리기 위해 부상당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인민들을 살리기 위한 혁명선배의 희생정신을 의미한다. 즉, 혁명선배의 희생 속에서 현재의 오늘을 살아가는 인민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장이 안천복에게 나무라는 것은 혁명 선배로서 혁명 후배에게 던지는 간곡한 부탁이자 호소였다.

> 이놈아, 이 용접봉 하나하나에도 전쟁 때 흘린 전우들의 피가,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가버린 그들의 피가 스며있어! 우리가 쓰는 것 어느 하나라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있니? 누가 공짜로 준 것이 있니? 우리 모두가 피땀 흘려 만든 것이구 허리띠를 졸라매구 얻어낸 것이야.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이구 입힐 것도 제대로 못 입히면서! 그렇게 마련한 나라재산이 너의 이름이나 내는 밑천인줄 아느냐? 제 이름을 내려구 나라재산 아까운줄 모르구! 이름만 내면 나라재산은 없어져도 좋다는 거냐? 이 용접봉 한 대에도, 꽁다리 하나에도 숱한 어머니들의 고통이, 아버지들의 슬픔이, 아이들의 배고픔이, 전우들의 피가 스며있단 말이다. 그런데 네가… 네가 그렇게 일해? 이 땅이 어떤 땅이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알고 있는 네가… 아, 분하구나…… 수염 많은 아저씨, 수척한 얼굴로 하여 별로 수염이 많아보이던 사람, 그 사람이 나이였으면 아버지도 세상에 없을 것이며 영순이도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진실이상의 진실이었다. 영웅들, 력사책이나 소설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거인들이였다. 그 거인들의 손으로 오늘의 공장이 일떠선것이였다.[18]

소대장이 화를 낸 것은 동료들의 피와 숱한 사람의 피가 배어 있는 물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안천복은 열심히 일해서 영웅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반장은 숱한 희생이 배어 있는 용접봉 하나라도 함부로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보기에는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희생이 배어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귀중한 물자를 기껏 영웅이 되는 발판으로나 생각하는 안천복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한웅빈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종자도 여기에 있다. 반장이 몸소 보여준 실천적 애국심은 이후 안천복에게로 전해졌고, 안천복의 진정성은 다시 영순에게 전해지고, 다시 돌격대장에게 전달될 것이다. 동시에 안천복이 그 동안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왜 스스로 영웅이 되기를 꺼려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진정으로 화해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순간, 영순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기에 충분하다.

『딸의 고민』은 현재 누리고 있는 평온한 일상도 사실은 보이지 않은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각성시킨다. 『딸의 고민』은 외면적 실적 쌓기 휘둘리지 않는 '진짜 영웅' 찾기의 본보기적 작품으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속에는 전쟁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각성시킨다. 이런 희생이 배어 있는 물건이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교양한다. 전쟁은 끝났어도, 그 전쟁을 통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오늘이 혁명선배의 희생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하고 보여준다.

---

18) 위의책, 150~151쪽.

2) 전쟁과 일상의 조우: 「전선길」

「전선길」은 『조선문학』 1987년 3호에 수록되었던 작품으로 단편집 『우리세대』에도 실려 있다.[19] 「전선길」은 어느 날 출근길에 기중기를 보다가 확성기 방송을 듣고 전쟁 때를 회고하는 액자형식의 소설이다.

매일 지나가던 건설장에서 어느 날 문득 새로 세워진 기중기가 눈에 들어온다. 기중기는 건물 높은 곳으로 물건을 옮기고 있었다. 한층 높아진 기중기를 보면서, 어젯밤 딸아이의 물리법칙을 떠올린다.

> 물건을 우에로 끌어올리 때 운동에네르기는 감소되며 반대로 잠재에네르기는 그만큼 증대된다. 높이 올릴수록 잠재에네르기는 커진다. 그러고 보면 부재(실어올리는 물건 - 필자주)에는 지금 잠재에네르기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 셈이였다.[20]

주인공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중기를 보면서 떠올린 물리법칙은 「전선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종자이다. 기중기 위에 실려 있는 부재는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높아지면 질수록 운동에너지는 커지기에 지금은 정지되어 있어도, 전쟁의 위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기중기를 바라보면서 딸아이의 물리법칙을 떠올리는 사이에 확성기 소리가 울린다. 확성기에서 "남조선 전역에서 최대규모의 '팀

---

19) 「전선길」은 단편소설집 『우리세대』에 수록되어 있다. 이하 쪽수는 단편소설집의 쪽수이다. 「전선길」, 『우리세대』, 3～25쪽.

20) 위의 책, 3쪽.

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을 진행한다고 한다"는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이 들려온다. 순간 나는 30년 전으로 돌아간다. 30년 전 1952년 여름 나는 중기부사수로서 사수와 함께 비행기사냥군조로 소환명령을 받고 ××산 고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사수와 함께 총을 메고 고지로 가던 나는 한 처녀가 모는 달구지를 얻어 탄다. 달구지에는 이웃마을의 어린 학생이 타고 있었다. 소달구지를 모는 처녀는 어디를 다녀오는지 풀과 나뭇가지를 잔뜩 꽂고 있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수조차 "아주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차림새나 몰골로 보아 나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차림새가 엉망이었다. 처녀는 '탄약을 나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달구지에는 어린 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처녀가 사는 이웃마을 아이였다. 사수는 아이가 놀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짐짓 '눈을 부릅뜨면서' 혼을 내려 하지만 아이는 코웃음을 치면서 '포탄을 날랐다'고 대답한다. 처녀와 아이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탄약을 나르고 포탄을 나르기 위해 새벽부터 위장을 하고 소달구지를 몰았던 것이다. 고지로 가는 도중 떡함지를 이고 가던 한 노파를 만난다. 함께 일행이 되어 수레를 타게 되자 사수는 노파에게 웬 떡이냐고 묻는다. 노파는 리영기라는 아들에게 주려고 떡을 만들어 아들이 있다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다. 사수는 아들을 걱정하는 노파를 위해서 '리영기라는 병사를 잘 안다'고 하면서 너스레를 떤다.

고사총 부사수인 주인공이 고지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인물들은 모두 전쟁의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있어야 할 자리를 잃었고, 가족과 헤어진 민간인들이다. 학교에서 보내야 할 '유년시절을 잃어버린 소년', '어머니의 기쁨을 잃은 어머니', '처녀시절을 잃은 처녀', '어머니를 잃은 아들' 잃어버린 것은 달라도 모두 피해자들이다.[21] 전쟁과

는 무관해 보이는 이들이 전장에 참여하게 된 것은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는 같은 처지였고, 잃어버린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전장에 나선 이들이었다. 아무런 인연도 없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 모두는 전쟁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전쟁이란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이들 인물을 통해 제시한다. 소달구지에 올라 탄 이들에게서는 비범하거나 장엄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저 힘없는 처녀, 아직은 어린 아이, 전쟁에 나간 아들을 위해 떡함지를 이고 가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일 뿐이다. 이런 이들이 비범함과 숭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전투기와의 일전이었다.

이런 저런 인연으로 달구지에 올라 함께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전투기와 일전을 치르게 된다. 비행기의 기총소사에 놀란 소가 달구지를 달아나자, 처녀가 급히 고삐를 잡지만 놀란 소는 멈추지 않고 달구지와 처녀를 끌고 달아난다. 폭격을 받고 달구지는 "한쪽바퀴를 쳐들고 모로 자빠"진다. 바닥에 넘어진 처녀는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고삐를 놓지 않는다. 처녀에게 소달구지는 비행기의 기총소사 중에도 지켜야 할 존재였다. 목숨을 각오하고 소달구지를 지켜야 하는 것은 소달구지를 가지고 전선의 군대를 원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녀의 비장함이 달구지를 놓지 않는 손을 통해 보여진다. 처녀의 이러한 모습은 북한문학에서 강조하는 후방원호의 전형적인 인물의 하나이다.

---

21) "유년시절을 잃은 소년, 어머니의 기쁨을 잃은 어머니, 사랑을 줄 곳 없는 어머니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데 있으랴. 또한 처녀시절을 잃은 처녀와 어머니를 잃은 아들-나 그리고 전쟁 2년간 분노와 슬픔을 웃음과 롱담으로 감추며 걸어가는 사수… 우리 일행은 전쟁을 겪는 우리 인민의 축소판인 듯 했다." 위의 책, 15쪽.

북한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쟁은 '전인민들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전쟁은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의식의 대결, 계급의 대결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을 문학으로 반영할 것을 작가들에게 요구한다. 문학예술을 통해서 이러한 본보기적 인물을 발굴하여 적극 읽히게 함으로써 전쟁에 대하는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여성의 몸으로 비행기의 기총소사에도 굴하지 않은 처녀는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에서 형상해야 할 전형적인 본보기이다.[22)]

달구지와 떨어져 숨어 있던 사수와 나는 사격을 시작한다. 사격을 하던 비행기 기총소사를 받고 총열에 구멍이 난다. 구멍 난 총열로 뜨거운 수증기가 솟아오르지만 뜨거운 수증기를 본 나는 총열을 맨손으로 막고 사격을 계속한다. 마침내 비행기에서 화염이 오르고 떨어진다. 위급한 상황에서 손으로 뜨거워진 냉각수를 손으로 막는 나의 행동은 전쟁에서 보여주어야 할 영웅의 모습이다. 이름도 없이 '나'로 명명된 주인공의 행동은 영웅으로서 상훈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지만 영웅성은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구태여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철저하게 무명성(無名性)을 유지한다.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지만 철저하게 유지된 무명성은 전쟁 병사의 무명성을 대변한다. 전쟁은 어느 용감한 군인의 전쟁이 아니라 많은 이름 없는 병사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전쟁의 무명성은 곧 북한문학의 전쟁을 반영하는 보편적 양상이다.

이름 없는 병사로서 나의 곧 나만의 위훈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

22) 북한 문학예술에서 여성의 몸으로 전쟁터를 누비는 작품은 중요한 소재의 하나이다. 영화 <담가소대장>, <당의 참된 딸> 같이 간호병을 소재로 한 작품은 물론 <남강마을 여성들>이나 <길>과 같은 작품에서 이런 유형의 여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데, 논판에 숨어 있어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온다. 현장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적기를 쏜 것이 우리만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나와 사수였지만 두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전쟁의 과정이 군과 인민의 상호적인 작용이었음을 강조한다. 군과 인민이 합심으로 적을 물리쳤다는 설정을 통해 군민원호의 정신을 강조한다. 수레에 같이 탔던 노파는 부상당한 나의 손을 감싸주면서 "에미가 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플고" 하면서 걱정하자, 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폭격에… "라는 대답을 한다. 내 말을 들은 노파는 갑자기 길을 돌아간다며 인사를 한다. 아들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노파는 '눈물인지 미소인지 분간 못할 눈빛을 하면서 말한다. "앞으로라도 우리 아들애를 만나면 이 에미 이야길 해주게나. 리영기라고 키가 이렇게 크구 별이 세알이라네. 중대장이야" 노파를 처음 만났을 때 사수가 너스레를 떨면 노파의 아들 리영기를 안다고 말할 때부터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쟁의 가장 큰 비극은 가족 관계의 파괴이다. 주인공인 나와 노파는 상실된 가족을 상징한다. 그래서 부상당한 나를 보면서 노파는 가장 먼저 상처를 보았다면 걱정했을 나의 '에미'를 대신한다. 자신의 아들도 전장에 나갔기에 나의 부상은 곧 아들의 부상으로 환치된다. 그런 나의 '에미'가 폭격으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들 찾기를 포기한다. 전쟁 통에 '에미'를 잃고 싸우고 있는 '나'같은 병사는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어디엔가 있을 아들을 찾아 나섰던 노파는 전쟁 통에 에미를 잃고 용감하게 싸우는 나를 보면서 아들을 대신한다. "세상이

아들이 있는 만큼 에미들도 있다네"라는 말은 '모두가 아들이고, 모두가 에미'라는 군민일체의 절정을 보여준다.

북한문학이 전쟁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하나도 군민일체에 있다. 군과 인민의 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들은 군대와 인민이 전쟁에 대처하는 '사상적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23] 군민일체를 통해 하나의 가족으로 결성되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싸움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사고의 하나로서 사회주의 대가정은 이러한 집단주의적 사유방식을 통해 확인된다. 전쟁은 집단주의적 사유방식을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의 하나이다.

전투가 끝난 다음 모두들 일상으로 돌아간다. 노파에 이어 아이도 달구지에서 내린다. 달구지에서 내린 소년은 숲 속에 감추어 두었던 굴렁쇠를 찾아 굴리면서 달려간다.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의 모습은 전장에서 포탄을 나르던 소년의 모습과 대비된다. 소년이 돌아간 일상은 그러나 전쟁 이전의 일상과는 다른 일상이다. 소년은 전쟁을 겪으면서 생활을 잃고 혁명가로서 성장하였다. 이것이 북한문학에서 주제로 하는 '의식의 성장', '혁명가로서 발전하는 모습'이다. 김일성은 전쟁을 취급한 영화라고 해서 전투하는 장면만 많이 보여주는 것을 옳

23) "작가, 예술인들은 군민관계를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군민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은 군대와 인민이 전쟁에 대처한 사상적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데서 큰 역할을 합니다. 군민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면 군대와 인민을 우리 당의 군민일치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일단 유사시에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쳐 싸우게 할 수 있습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인민군군인들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위하고 인민들이 군인들을 친혈육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과 전투준비를 적극 도와주는 것을 형상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17일," 『김정일선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373쪽.

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전쟁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생활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혁명의식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혁명가로 자라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혁명과정이 간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투쟁 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24]

굴렁쇠를 굴리면서 놀아야 할 어린 소년을 포탄을 나르는 소년으로 만든 것은 전쟁이었다. 폭격으로 학교가 무너지면서 '미제'와 싸우기 위해 어린 손으로 포탄을 나르게 되었던 것이다. 철없는 어린 학생에서 스스로 나서서 포탄을 나눌 줄 아는 예비 혁명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소년의 모습은 앞서 끌려가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던 처녀와 함께 이른바 '인민들의 전선원호' 사업의 모범이며, 전쟁소설이 지향해야 할 주제가 녹아 있다.

사수와 내가 고지에 도착하자 처녀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것을 보고 나는 비로소 깨닫는다. 처녀는 자신이 사는 마을을 이미 지나쳐 왔던 것이었다. 오는 도중 소가 마을로 발길을 돌렸던 것은 '달콤한 햇콩의 콩냄새가 아니라 자기 집이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이었다.[25] 이러한 장면 묘사는 군과 민이 일체가 되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

---

24) "전쟁을 취급하는 영화라고 하여 그저 전투하는 장면만 많이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도 사람이 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생활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취급하는 영화에서도 마땅히 사람들의 생활을 그려야 하며 전쟁의 시련 속에서 사람들의 혁명의식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혁명가로 자라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일성,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10월 22일," 『김일성저작집』, 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446～447쪽.

25) "처녀는 우리의 중기관총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이였다. 소가 갈림길에 들어선 것도 그래서였다. 소는 풀냄새가 아니라 정든 자기 집의 구수한 콩여물 냄새를 맡은 것이다." 한웅빈, 「전선길」, 『우리세대』, 23쪽.

을 상징한다. 화상을 무릅쓰고 비행기에 맞서 고사총을 쏘는 병사의 모습은 영웅적이지만 구태여 숲 속에 숨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누구의 총에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군민일치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이다. 이러한 군민일치야 말로 전쟁을 소재로 한 북한 소설이 보여주어야 할 필수적 종자에 해당한다.[26)]

잠시 옛 생각에 빠졌던 나는 문뜩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면서 전쟁에 대한 추억은 일단락된다. 어찌 보면 회상한 전쟁은 극히 부분적이고 지엽적이다.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전쟁의 양상은 북한 문학예술에서 강조하는 전쟁 반영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북한에서 전쟁을 반영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강조하는 것이 전쟁의 전체를 그리지 않고, 사건을 그리는 것이다. 전쟁영화라고 하면 "전쟁의 첫날부터 승리하는 날까지 다 포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쟁의 전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그리는 경향은 안 된다'고 하면서, 전쟁을 그리되 연대기적으로 쓰지 말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소재를 찾아 작품을 쓸

---

26) "조국해방전쟁 때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군대의 투쟁에 대해서도 쓰고 직후에서의 유격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도 써야 합니다. 작가들이 조옥희와 같이 이름 있는 사람만 찾으려 하지 말고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써야 합니다. 구월산유격대에 대해서도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후방인민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써야 합니다. 요즘 나온 군무 <남강마을의 녀성들>을 보았는데 좋은 작품입니다. 그런 자료를 더 찾아내여 작품을 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혁명적 대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작가들과 한 담화 1963년 11월 5일," 『김일성저작집』, 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487～488쪽.
"3년 동안의 조국해방전쟁에는 항일유격투쟁보다 더 많은 대중이 참가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계급과 계층이 참가한 문자 그대로 전인민적전쟁이였습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다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문학예술인들은 이런 투쟁을 그린 작품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일성,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4년 11월 7일," 『김일성저작집』, 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440쪽.

것을 강조한다.[27] 작은 이야기를 그리는 것은 진격과 후퇴가 있는 전쟁에서 상황에 맞추어 여러 가지 투쟁 방법을 교양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부닥치더라도 영화나 소설에서 본 내용을 더듬어가면서 싸울 수 있게'하기 위해서이다.[28]

전쟁에 대한 회고로부터 돌아 온 일상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걸어온 길거리도 그대로이고,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일 없다는 듯이 길을 가고 있었다. 일상은 평온해 보인다. 그러나 그 평온의 일상은 아무런 위험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 전쟁의

---

27)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드는 데서도 전쟁의 첫날부터 승리하는 날까지 다 포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과정을 한편의 영화에서 다 취급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과정을 년대기식으로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취재하기도 힘들고 영화를 만들기도 힘듭니다." 김일성, "깊이 있고 내용이 풍부한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영화문학작가, 영화연출가들 앞에서 한 연설 1966년 2월 4일," 『김일성저작집』, 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83쪽.

28) "년대기식으로 쓰지 않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작품을 쓰려면 소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 후퇴시기에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용감히 싸운 내용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도 좋은 교양자료로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후퇴시기에 소부대가 적후에서 활동하면서 적들에게 큰 타격을 준 사실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오에서 떨어진 병사가 신념을 잃지 않고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적후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재진격하는 부대를 만난 감격적인 이야기라든지, 적강점지역에서 지하공작이나 유격투쟁을 한 사실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적후에 남게 되더라도 신심을 잃지 않고 용감히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일진일퇴하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전쟁역사는 거의 모든 전쟁들에서 다 진격도 있고 후퇴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을 여러 가지 투쟁방법을 가지고 교양하여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운 환경에 부닥치더라도 영화나 소설에서 본 내용을 더듬어가면서 싸울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깊이 있고 내용이 풍부한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영화문학작가, 영화연출가들 앞에서 한 연설 1966년 2월 4일," 『김일성저작집』, 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83～284쪽.

위험이 잠재된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다. “높은 곳에서 움직임이 멎는다고 하여 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곧 축적된 잠재에네르기를 의미하는 것”처럼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를 전쟁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 일상인 것이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평온의 순간은 전쟁의 운동에너지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소설을 통해 각인한다. “이 출근길과 그날의 전선길은 하나의 길이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30여 년의 긴 세월을 걸어온 먼 길”이었고, 오늘 가고 있는 “이 길의 시작이 전선길과 잇닿아 있다는 것을 망각할 만큼 먼 길”이라는 것을, 전쟁의 날과 평온의 날이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길이라는 것을 통해 전쟁의 일상성을 분명하게 각인하는 것이다. 「전선길」을 통해 소설을 통해 일상에 잠재된 전쟁의 위험을 어떻게 제시하고 교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잊지 말아야 할 기억: 「소원」

「소원」은 단편집 『우리 세대』에 수록된 단편소설이다. 주인공은 전쟁주제의 명화창작으로 이름난 화가 서영민이 전쟁영웅 소재 명화를 창작하게 된 계기가 한 무명용사의 무덤 때문이었다는 것을 들려주는 액자소설이다.

화가 서영민은 전쟁주제 그림으로 이름을 떨치는 화가이다. 서영민에게는 괴짜 버릇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젊은 화가들이 전쟁주제 이외의 그림을 그리면 언제나 ‘이 그림을 왜 그렸느냐’고 묻곤 하는 것이었다. 젊은 화가들이 서영민에게 ‘왜 전쟁주제 화가가 되었는지’를 물어보지만 서영민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야 선군시대에 살지 않소”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젊은 화가들은 서영민

이 진정으로 전쟁주제 그림을 그리게 된 사연을 궁금해 하였지만 명쾌하게 알지 못하고 궁금해 할 뿐이었다. 그래서 서영민이 “왜 그런 그림을 그리느냐”고 묻는 것도 그저 일상적으로 묻는 말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마침내 젊은 화가들은 우연하게 서영민이 왜 전쟁주제 화가가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젊은 화가 몇 명이 서영민의 집으로 찾아가던 날은 마침 대청소 중이었다. 평소 서영민은 손님이 오면 언제나 화실이 아닌 전실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곤 하였고, 화실을 보여주지 않았다. 화실은 서영민의 공간이었다. 화실은 부인이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할 권리’도 없는 공간이었다. 그런 서영민의 화실을 어쩔 수 없는 대청소 때문에 젊은 화가들에게 허락하게 된 것이었다. 서영민은 그날도 예외 없이 전실에서 젊은 화가들을 맞이하였는데, 마침 대청소를 하면서 전실은 온통 물건으로 채워졌고,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서영민은 별수 없이 화실에서 젊은 화가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서영민의 화실에 처음 와본 젊은 화가들은 이리저리 화실을 둘러보다 소학교 학생 수준의 유치한 그림을 발견한다. 대화가의 화실에는 어울리지 않은 소학교 학생 수준의 그림이 어떤 사연으로 화실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 한다. 서영민은 젊은 화가들에게 ‘소학교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서 그림에 얽힌 사연을 들려준다.

어릴 시절 서영민이 다니던 학교 뒤편 동산에는 ‘무명전사의 묘’가 하나 있었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무명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전쟁시절 사람들이 폭격을 피해 숨어 있던 방공호 앞에 시한폭탄이 떨어진다. 무명용사는 용감하게 나가 폭탄을 처리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무명용사의 무담은 폭탄을 몸으로 막고 죽은 무명용사의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날 저녁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오른 서영민은 선생님이 내준 숙제도 잊고 학습장에다 낮에 선생님이 들려준 무명용사의 얼굴을 그려서 제출하였다. 서영민이 학습장에 무명용사의 그림을 그리게 된 사연을 들은 담임선생님은 앞으로도 '무명용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 밤 서영민은 꿈에서 무명전사를 만난다. 선생님의 말씀과 꿈에서 만났던 무명용사의 말은 이후 서영민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다. 서영민은 이후로 학습장에 그렸던 무명용사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전쟁주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던 것이다.

「소원」은 분량도 짧고 스토리도 단순한 단편이다. 「소원」은 오늘날 인민들이 살아 있고 생활을 누리는 것은, 인민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친 무명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환기한다. 북한 문학예술 창작의 원칙의 하나로서 무명용사의 일화를 찾아서 작품으로 창작하는 것을 강조한다. 영웅을 그린다고 하여서 계급이 높은 군인을 소재로 할 것이 아니라 평범한 병사의 용감한 행동을 전쟁의 전형으로 그리라는 것이다. 이름 없이 싸운 무명용사의 이야기를 적극 찾아내어 영화로 만들어 낼 것을 강조한다.[29] 「소원」은 이러한 주제에 충실하게, 누리는 생활 속에서 인민을 대신하여 죽어간 무명용사를 잊지 않고 그려내는 서영민과 같은 화가를 통해 그들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가로서 서영민의 행동은 김정일이 미술론에서 강조했

29) "우리는 전체 인민들을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안영애동무와 같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무명영웅전사들도 적극 찾아내여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결론 1971년 2월 15일," 『김정일선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153쪽.

던 전쟁을 주제로 한 미술창작의 방향과도 일치한다.[30] 한웅빈은 김정일이 '미술론'에서 강조했던 주제 문제를 「소원」의 작중 주인공인 화가 서영민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한웅빈은 일상의 틀 안에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현실을 포착하는 작가이다. 한웅빈의 소설에서 전쟁은 중요한 소재이거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실의 동력이 되고 있다. 전쟁 경험을 통해 진정한 조국애와 영웅이 무엇인지를 반추하는 「딸의 고민」을 비롯하여 「전선길」, 「소원」은 전쟁에 대한 기억을 통해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쟁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한웅빈의 작품에서 전쟁은 늘 현재와 함께 하고 있는 일상의 문제로 다가온다. 이것은 한웅빈의 작품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문학예술 작품에서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북한에서 전쟁은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며, 일상생활의 문제로 환기된다. 생활 현장 어디에서나 전쟁과 관련한 일상적인 용어들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중대장, 대대참모,

---

30)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과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조성된 정세와 세대가 바뀌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미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낼 것을 요구한다. 미술가는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과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부패성, 침략적 본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지주, 자본가를 비롯한 착취계급을 미워하는 계급의식을 높이며 전쟁관점을 바로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김정일, "미술론 1991년 10월 16일," 『김정일선집』, 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66쪽.

돌격전, 속도전, 전격전, 사령부, 모내기 전투, 120일 전투, 생산고지, 결사전, 전쟁소설, 전쟁영화, 전시가요, 전투실화, 전투제육 등의 용어들이 공식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일상의 반영으로서 문학예술이 전쟁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웅빈의 소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일상 속으로 스며든 전쟁의 위험, 일상에 잠재된 전쟁의 위험을 날카롭게 포착하면서, 생활 속에서 전쟁을 잊지 않고, 전쟁의 희생을 상기시키고 있다. 한웅빈 문학에서 전쟁은 과거의 기억이다. 그러나 특별한 과거의 기억이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길은 특별하지 않다. 책상을 정리하다 문득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듯 일상의 시간 속에 잠시 과거로 돌아간다. 일상이라는 삶의 공간, 시간의 공간을 스냅사진처럼 멈추었던 기억을 불러내고,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현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의 잠재적 에너지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름 없이 죽어간 용사의 희생이 오늘날 인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통해,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환기한다.

북한 문학예술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예술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들에게 혁명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를 교양하는 것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전쟁의 경험을 보여주는 교양교재로서 일차적인 역할을 한다. 다른 하나는 전쟁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알려주는 교양서로서의 기능이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문학예술 작품을 통해 제시한다. 문학예술 작품은 생활관과 인생관을 교양하는 직접적인 지침서가 된다.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당을 믿고 충실히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

행하는 것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교양한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당에서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검증된 것이다. 따라서 한웅빈의 소설에 반영된 전쟁 표현 양상은 북한 문학예술 창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괴벽한 성격'의 소유자로 눈총을 받는 안천복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선배들의 희생을 잊지 않은 생활 속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딸의 고민』, 어느 날 문득 출근길에 떠올리는 전장의 기억을 통해 일상과 전쟁이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음을 각성시킨 『전선길』, 어린 시절 선생님에게서 무명전사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주제 화가가 된 이야기를 통해 무명용사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는 주제의 『소원』은 북한 문학예술이 전쟁을 어떻게 호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 접수: 6월 28일 / ■ 채택: 8월 27일

참고문헌

1. 북한자료

1) 단행본

김덕철·한웅빈, 『결승선』(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한웅빈, 『푸른 잎사귀』(평양: 문예출판사, 1987).

_____, 『나의 창문』(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_____, 『아, 조국!』(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_____, 『우리세대』(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한웅빈·로정법, 『평양사람』(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한웅빈·신용선, 『소원』(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2) 신문 및 기타자료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이다," 『로동신문』, 2001년 1월 24일

김일성, "깊이 있고 내용이 풍부한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영화문학작가, 영화연출가들 앞에서 한 연설, 1966년 2월 4일," 『김일성저작집』, 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4년 8월 10일," 『김일성저작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의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10월 22일," 『김일성저작집』, 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_____,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64년 12월 8일," 『김일성저작집』, 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혁명적 영화창작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영화부문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8년 11월 1일," 『김일성저작집』, 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정일,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결론 1971년 2월 15일," 『김정일선집』, 2권(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_____, “주체문학론 1992년 1월 20일,” 『김정일선집』, 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_____,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17일,” 『김정일선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3년 1월 14일,” 『김정일선집』, 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철진, “선군시대 전쟁주제단편소설들에서 전쟁승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영웅적 인민들의 형상,” 『조선어문』, 1호(2009).
허성숙, <강좌> “주체사상이 밝힌 전쟁의 성격,” 『철학연구』, 2호(2009).

2. 국내자료

“북한 작가의 산실, 문학통신,” 『연합뉴스』, 2005년 10월 21일.
김성수, “김정일 시대 문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선군(先軍)시대 ‘선군혁명문학’의 동향과 평가,” 민족문학사학회 편, 『민족문학사연구』, 27호(2005).
_____, “북한의 ‘선군혁명문학’과 통일문학의 이상,” 『통일과 문화』, 창간호(통일문화학회, 2001).
노귀남, “북한문학 속의 변화 읽기,” 통일문화학회 편, 『통일과 문화』, 창간호(2001).
이봉일, “2000년대 북한문학의 전개양상,” 김종회 편, 『북한문학의 이해 3』(서울: 청동거울, 2004).
이선미, “‘위훈’을 성찰하는 냉소적 시선과 근검절약의 이데올로기－북한작가 한웅빈 소설연구 I,” 『현대소설연구』(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전영선, “백인준의 수령형상화와 계급성 논쟁－‘최학신의 일가’를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학회 편,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5호(2009).
_____, “실리사회주의의 냉소적 자화상,”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 『북한문학의 지형도』(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_____, “한웅빈의 작품 및 목록,”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 『북한문학의 지형도』(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Abstract

A Study on Woong-Bin's Short Stories Reflection of War

Jeon, Young Sun(Konkuk University, HK Research Professo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reflection of war in North Korean novels. In North Korea, "War" is an ongoing and everyday matter. The military terms have been used in everyday life, and new works about war in literature and arts including war songs always have been being created. The literature and arts are mongering scare continuously by capturing aspects of war in everyday life.

Han Wong-Bin is a writer who caught aspects of war in life sharply. War is used as a significant motif in his novels even if the work was not set at war. He concerns figure of true hero. True hero does not show himself, but sacrifices himself in silence in a place out of sight. Such sacrifice comes out through war. Everyday life of today also is held through the hero working in silence at the industrial field. Han Woong-Bin's works show the way war is called in North Korean literature, further in everyday life.

Key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literature, North Korean novels, Han Wong-Bin, War Literature, Korea War, Juche theories on art and culture